

연안역 개발 중심지로 떠 오른 江口港

한 상 복

〈국립수산진흥원 해양과장〉

江口港은 五十川의 하구에 있는 항구이다.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에 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운항만청 소관의 제2종 항만으로 분류되어 있다. 비록 해운항만청 관리 아래 있는 항만이지만, 강구항은 여전히 영덕군 제일의 어항이다. 강구수협이 있고, 어민수도 1,700여명이나 된다.

강구항은 우리 나라에서 두 번째로 일찍 어항시설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제일 먼저 어항시설이 시작된 곳은 전라북도의 외딴 섬 어청도였다. 어청도에서는 1912년 제1차 공사가 시작되

어 1913년에 끝났는데, 江口에서는 1913년 시작하여 이듬해인 1914년에 마친 일이 있다. 그래서 강구항은 어청도와 함께 우리 나라 어항 건설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옛날의 역사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위치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강구면 강구리에 지난 4월 영덕어촌 지도소가 처음 문을 열고 인근의 어촌 지도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 강구항의 어항 건설 사업을 알아보기로 하자. 요즘 일 들은 쉽게 알 수 있고 또 누구나 아는 일이니 옛날

의 초기 어항 건설에 역점을 둔다.

1차 어항 건설 사업

강구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인 1913년에 어항 건설이 시작되어 이듬해인 1914년에 1차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공사비가 7,576원이었는데 국고 부담이 4,000원이고 3,576원은 지방비로 충당되었다. 우선 배의 정박 시설과 오십천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막는 일에 급했지만, 1차 어항 건설로 이 지방의 어업 활동이 현저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차 공사의 거의 모든 시설은 1919년 오십천의 범람과 대풍 수해로 거의 유실되고 53명의 사망자까지 생기는 변란이 있었다. 그 후 한규열(韓圭烈)씨가 중심이 된 어업조합이 1923년 조직되면서 다시 어항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어항 건설 사업

오십천의 범람으로 피폐해진 강구항을 재건하기 위해서 1927년부터 1930년까지 4년간 총공사비 199,656원을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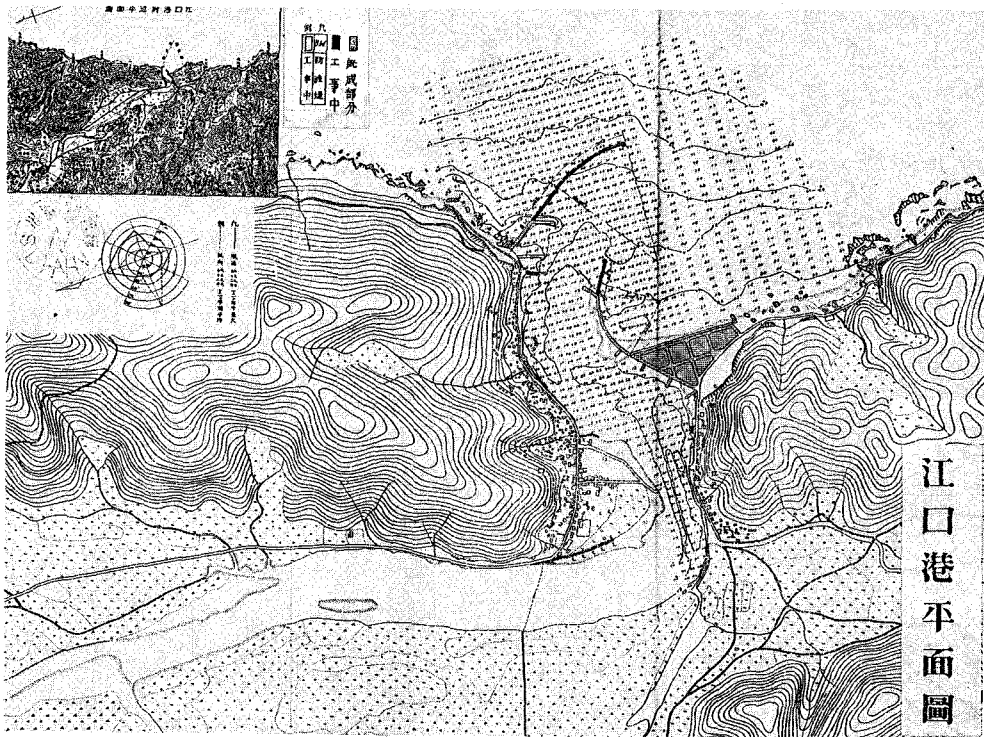
여 제방 250m, 도수제(導水堤) 245m, 제수제(制水堤) 260m, 매립지 28,664㎡ 및 4,000㎡의 준설까지 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했다. 총공사비중 경상북도의 지방비가 110,000원 들었고, 나머지 89,656원은 국고 보조였다. <그림 1>은 1930년 당시의 강구항 평면도이고 <그림 2>는 그 때의 강구항 전경이다.

제3차 어항 건설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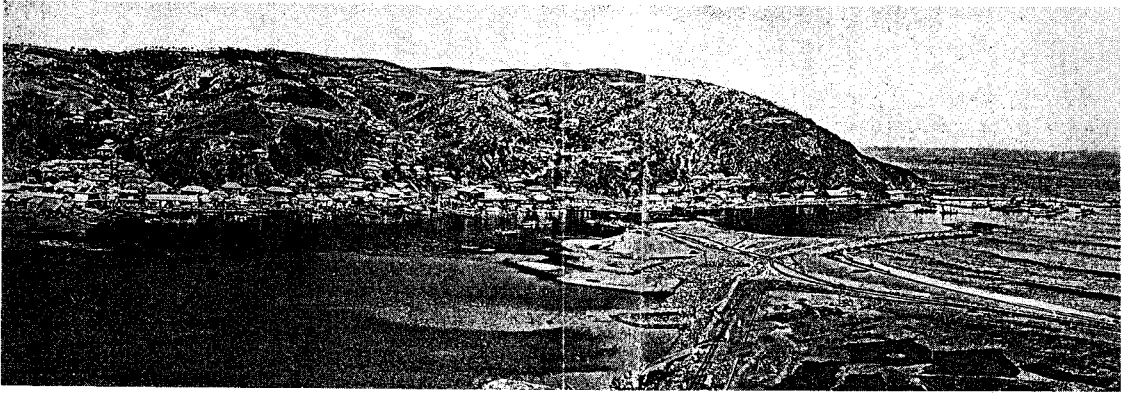
제3차 건설 사업은 1931년

시작하여 1933년에 완성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935년에 마무리 지었다. 총공사비 189,000원 중 국고 부담과 지방비 부담이 반 반이었는데, 국고 부담분은 빈민 구제 사업의 일환이기도 했다. 제3차 건설 사업은 제2차 사업의 연속이면서 마무리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성된 1935년에 강구항은 동해안 굴지의 어항이 되었다.

어항으로 제 구실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상항의 역할도 겸하게 되어 강구항의 전성기가 시작되기도 했다.



<그림 1> 1930년의 강구항 평면도



〈그림 2〉 1930년의 강구항 전경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완성된 어항 시설은 40년대나 50년대에 시대적 혼란기로 더 확장되지 못하다가 60년대 이후 시설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강구연안역 개발의 중심지

어항은 어촌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과 물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어항이고, 값진 배를 안전하게 하는 곳이 어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항은 연안역 생활권의 중심지가 되고 또 연안역개발의 센터가 되는 것이다.

오십천 하구에 자리 잡은 강구항은 강구 연안역 개발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서 연안역이라 함은 단순히 물과 물이 만나는 해안선 일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에

따라 이제 연안역이 12해리의 영해를 벗어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를 연안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해안선 일대는 물론이고 영해 수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연안역 관리이다. 그렇고 보니 강구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민들은 강구항을 근거지로 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강구 연안역을 개발해오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용에만 중점을 두어서 개발했는데, 이제부터는 지속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개발만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서 통합적인 연안역 관리가 된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체제로의 변환이 바로 통합관리의 기본 요체이다. 전에는 마음대로 바다에 나가서 잡으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어업자원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해 가면서

잡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 폭증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잡는 어업에도 또 기르는 어업에도 강구항은 그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강구 연안역의 권역 중심어촌 종합 개발이 바로 통합적인 연안역 관리이다. 물론 종합개발도 지속적인 자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연안역 관리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의미한다. 규제없는 관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래도록 풍요로운 어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를 전제로 한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때에 강구항의 위치는 강구 연안역 개발의 중심지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